

지금 왜 다시 러시아문학인가

굵직한 기획 연이어... 시장성은 여전히 불투명

이권우

자유기고가

익히 알고 있듯 그간의 우리 문단이나 출판계에서 이루어진 소련의 현대문학 소개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현상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소련문학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출판사가 뚜렷한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며 출판계에서 자리를 잡아가는가 하면 소련 현대문학 전집이 잇따라 기획, 출판되고 있어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러시아문학의 활발한 소개는 우리 근대문학에 끼친 러시아문학의 폭과 깊이를 짚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문학사적 의미와 함께, 탈냉전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힘입어 분단이테올로기에 의해 객관적인 접근 그 자체가 '원천봉쇄'되었던 소련현대문학에 대한 주제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분단상황이라는 역사적 조건이 외국문학의 수용에 강요하였던 이념적 검색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한국판 세계문학 全圖에서 변방에 속해야 했던 소련문학이 당당히 '실지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문학 수용략史

우리 출판계에 뒤늦게 몰아닥친 러시아문학 열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우리 문학사에 있어 러시아문학의 수용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러시아문학의 수용사가 곧바로 우리 사회의 정신사를 올곧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소련 현대문학의 수용양상을 미리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결론을 미리 말하면, 러시아문학의 수용사는 시대상황에 의해 제약되고 시대정신에 의해 그 수용한계의 폭이 넓어지는 역동적인 역사다.

김윤식교수(서울대 국문과)는 「한국 근대문학과 러시아문학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러시아 문학이 우리 근대문학 속에 언제부터 어떤 경로와 수준으로 수용되었는지를 살피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국내에 러시아문학이 소개된 것은 최남선이 톨스토이의 「사랑의 승전」을 1900년 「소년」지에 간략하게 소개하면서부터. 이후 국내의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투르게네프와 도스토예프스키 등 러시아 근대문학의 '삼두마차'가 비록 번안수준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소개되었다.

분단상황이란 역사적 조건이

우리의 외국문학 수용에 강요했던

이념적 검색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아연 활기를 보이는

소련의 현대문학 소개는

충분한 주목을 끈다. 그간 한국판

'세계문학全圖'에서 늘 변방에

머물러 있던 소련문학의 실지회복이

바야흐로 본격화되고 있다.

러시아 혁명이후의 문학은 식민지 시대 카프론인들에 의해 문학작품과 더불어 문학이론이 활발히 소개되었고, 체제선택의 기회였던 해방공간에는 폭발적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국내 러시아문학은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반공이테올로기라는 전가의 보도가 러시아 문학의 싹을 잘라버렸기 때문. 단지 파스테르나크의 「의사 지바고」와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는 작가들이 망명작가라는 점과 함께 반공문학의 하나로 흡사 '영웅대접을 받으며'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다. 60년대 초에는 러시아 근대문학을 중심으로 직역을 원칙으로 한 양문문고의 기획과 73년 우정출판사가 기획한 러시아대표문학전집이 간행되어 일시적인 붐을 조성했으나 '단발성'에 머물렀다.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머물렀던 러시아문학의 수용은 8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자 한 진보세력에 의해 다시 활성화되었다. 고리키의 「어머니」, 알렉세이 톨스토이의 「고난의 길」, 솔로호프의 「고요한 둔강」이 말해주듯 불세비키 혁명을 전후로 한 긴박감 넘치는 당시 상황의 선명한 재현과 혁명과정들 통해 혁명의 대의에 눈 뜨는 각 계층의 고뇌와 실천이 주 내용을 이루는 이들 작품은, 당국의 판공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번역이 중역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도래한 러시아문학의 '황금시대'

90년대 우리 출판계는 러시아문학의 황금시대를 맞이하고 있는가. 이즈음 쏟아져 나오는



서점에 나와 있는 소련문학 관련도서.

러시아 문학작품은 일단 숫적인 면에서 이러한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문학의 번역출간은 전문출판사에 의한 단행본 출판과 일정한 기간 안에 작품선정과 번역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전집출판이라는 두가지 길이 병행하여 왔다.

이 가운데 국내에 소련 현대문학의 본격적인 소개의 '기폭제'를 터뜨린 출판사는 열린책들. 지난 86년 솔제니친의 「붉은 수레바퀴」를 출간하면서 첫발을 내딛었다.

“그간 국내에 소개된 러시아문학은 19세기 작품이거나 현대작품의 경우 망명 작가들에 국한된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에 소련의 현대문학 작품에 대한 편견 없는 소개가 오늘의 소련을 이해하는 첩경이라 생각되어 러시아 소비에트 소설을 기획하게 되었다”는 것이 홍지웅씨(대표)의 설명이다. 열린책들은 이같은 기획의도에 따라 60여종의 소련문학 작품목록을 선정, 그간 27권을 출판하는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이 가운데 모스크바 예술의 거리 아르바트에서 태어나 스탈린시대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대학생들의 사랑과 방황 그리고 저항을 그린 리바코프의 「아르바트의 아이들」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권력과의 대립에서 갈등을 겪는 지식인들의 초상을 통해 소련의 사회상을 전면부 부각시킨 스푸트가츠키의 「증말전 100년」과 혁명의 와중에서 전개되는 수도원의 위선과 상류계층의 타락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칼리니코프의 「모나히」등이 화제작이다.

또한 고리키의 「어머니」, 빠스체르나끄의

「닥터 지바고」 오스트로프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등은 기간 번역서가 중역임에 반해 러시아 원본을 저본으로 삼아 한글 세대에 맞게 새로 번역함으로써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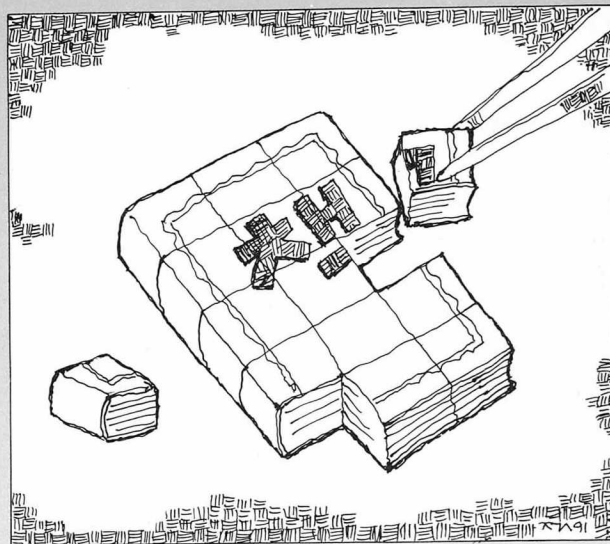
아직 2종의 책만 출판되었지만 문이당의 「페레스트로이카문학선」도 눈에 띄는 기획이다. “그간 금기시되었던 사회주의문학을 소개한다는 데 일단 의의를 두고 소련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의 문학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 기획의도. 유리 프리포노프의 「그때 그곳」과 그레코바의 「대학교수」가 출간되었는데 전환기적 몸살을 앓는 소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러시아 현대문학을 편집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전집은 90년 중앙일보사가 간행한 소련 동구문학전집이 처음이다. 전 30권으로 기획출판된 이 전집은 이 가운데 10권은 동구문학에 해당돼 소련작품만은 20권.

냉전시대의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에 다른 서구문학의 왕성한 소개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현대문학작품이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것을 반성, 비판하고 있는 편집위원들은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 모든 이테올로기적 기준들을 탈피하고자 했다.

소련문학에 대한 통사적이고 집중적인 소개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벨냐크 등 혁명 이후 프로문학 성립기에 활약한 작가들로부터 잘라이킨에 이르는 최근의 작가들이 총망라되었고 소련현대시선과 현대소련의 문학이론도 포함되었다. 특히 이 전집은 거의 모든 작품이

제작하는 일의 즐거움



1987년부터 다섯해 동안이나 책 만드는 일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온 우리 바른글방 식구들이지만, 편집이 끝나고 제작과정으로 넘어갈 무렵에는 항상 새롭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편집이 끝난 대지가 제판소에 넘어가고, 인쇄와 제책을 거치는 동안 제작담당자의 마음은 온통 제작일꾼들의 눈과 손끝에 집중되게 됩니다.

선이 지워졌다, 농도가 흐리다, 접지에 이상이 있다, 아니다, 원고지정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서로 싸울 듯이 언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제책이 끝난 따뜻한 책을 나누어 퍼들 때쯤이면, 그 갈등이 결국 책을 책답게 만들겠다는 서로의 고집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닫곤 합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과 책을 만드는 즐거움이 함께 있는 집단—— 바른글방에는 맘뉘려 일하는 제작일꾼들의 가슴에서 전해져 오는 책을 만드는 일의 또 다른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판·전·문·집·단



편집기획부 전산사식부
종로3가 낙원상가 옆 신한빌딩 4층 종로3가 파카디리 극장 옆 초동빌딩 2층
전화 766-6426 (대), 766-6427 전화 764-4241 (대), 764-4240
766-1947 팩시 744-9209

출판전문집단 바른글방 사람들은 책에 관한 모든 일들을 거뜬히, 믿음직스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편집 및 교정은 물론, 책의 기획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표지·본문·출판광고 디자인과 전산·수동 입·출력, 그리고 제작전반에 이르기까지 숙련된 전문가의 솜씨로 대행해 드립니다.

바른글방에서는 이를 위해, 미려한 서체의 최신기종인 전산사식 편집·입력기 15대와 레이저 교정지 출력기·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를 자체보유하고 있으며, 일반 퍼스컴이나 워드프로세서로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위한 수동사식기와 중국어 간체자 자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초역이라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 전집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들로부터 반체제작가까지 전체를 아우른다”는 당초의 기획의도와는 달리 반체제 작가들이 보다 많이 선정되는 불균형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90년대 들어 활기를 띠고 있는 소련 문학의 출간에 한길사가 새로운 기획안을 내놓아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전체 50권으로 기획된 ‘러시아소비에트문학전집’이 바로 그것인데, 이 전집에는 18세기 이후 러시아 근대문학학 러시아 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현대문학이 선정되어 있다.

이 전집은 특히 작품선정의 객관성과 세계성을 갖추기 위해 소련측 편집위원으로 꾸즈네프(소련 과학아카데미 세계문학연구소장)와 김태호(같은 연구소 주임 연구원)가 참여하였고, 국내 편집위원으로는 박형규(고려대) 이항재(단국대) 김희숙(서울대) 교수가 각각 참여했다.

이 기획이 러시아문학의 주체적 수용의 한 전범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임현영씨(한길사 주간·문학평론가)는 “러시아문학의 고전을 정확한 판본작업을 통해 민을 수 있는 번역본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집은 1차분으로 오는 6월말까지 레르몬토프의 「현대영웅」 게르센의 「누구의 죄인가」 톨스토이의 「부활」 채홉의 「중단편집」등 여섯 작품을 발간하는 것을 시발로 올해 안에 15권, 내년엔 20권 내후년에 15권을 출간, 완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왜 다시 러시아문학인가

지금, 왜, 여기서, 다시 러시아문학인가, 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당연한 일이라는 견해를 나타낸다. 정치적 요인이 근원인, 문화적 요인이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 현상은 먼저, 그간의 이데올로기의 장벽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학적 교류가 비록 늦었지만 지금에야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활발한 작품출간은 당연지사라는 것.

특히 소련과의 수교는 과거와 같은 반공 이데올로기로 문학적 교류를 차단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게 됨에 따라 이같은 괄목할 정도의 성과를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즈음 많은 종류의 러시아 문학이 쏟아져 나오지만 다른 문화권에 비하여

양적으로는 아직 열세라는 것도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러시아문학이 줄곧 우리네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까닭에 대해 박형규교수는 “러시아문학의 전통인 역사의 움직임에 대한 민감한 반응, 그때그때의 사회적 정치적 목적에 대한 강렬한 반영과 진솔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이상주의적 태도가 우리 독자들의 감수성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임현영씨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의 대륙기질과 러시아의 그것이 상당한 동질성을 갖고 있고, 특히 러시아의 역사와 우리 역사 그리고 시대적 상황의 유사성이 국내 독자들에게 많은 점에서 교훈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종진 교수(외대 러시아어과)는 이런 견해를 나타내면서 모처럼 일고 있는 러시아문학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전집출간이 갖는 맹점을 철저히 보완할 것을 주문. 즉, 일반적으로 계획기간이 짧고 단기간에 번역해야 하는 일정의 촉박함 때문에 전집출판에는 항상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 “특히 한 전집에서 역자구성의 편향성을 보인다거나 작품선정에 있어 일본을 모방했던 구습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한다”면서 소장 러시아문학 전공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번역에 임하기를 당부한다.

그러나 이런 관심 고조현상과는 달리 출판 일선에서는 러시아 현대문학의 시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지용씨는 이런 경향이 전세계적으로 순문학이 퇴조하고 있다는 일반적 흐름과 함께 우리의 일상사나 감수성이 과거와는 달리 많은 부분에서 서구화된 것이 소련 현대문학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는 견해다. 이광자씨(문이당 편집장)도 이런 견해에 동의하면서 “현대 소비에트작가군과 세계적인 러시아 대문호들의 작품성향이 달라 과거 귀족사회의 방대하고 웅장했던 스케일을 기대하고 현대문학을 읽었던 독자들이 실망하게 되는 것 같다”면서 소련 현대문학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소개와 적절한 홍보작업을 통해 이런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